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20.(금) 12:00 배포시점 2026.11.20.(금)

산업부·경제 6단체, 수출 1조 달러 넘어 '질적 성장' 도약 다짐

- 김정관 장관, 경제 6단체 오찬 … '수출 온기 확산·신수출동력 발굴·교역국과 함께 성장하는 통상' 3대 과제 제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질적 성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수출 규모를 키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수출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 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미래 수출 동력을 위한 투자와 통상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성장을 이뤄가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일 서울 달개비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출 1조 달러 달성 이후 우리 수출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민관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62년 만인 지난 11월 19일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으로, 62년간 수출 규모가 약 1만 배 성장한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수출 1조 달러는 낯선 시장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위기 때마다 투자를 멈추지 않은 기업인, 생산 현장을 지켜 온 노동자, 밤낮없이 수출품을 실어 나른 물류 종사자,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기록"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1조 달러 달성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강조하며,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수출 온기의 경제 전반 확산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 육성 ▲교역 상대국과 함께 성장하는 통상 전략 추진을 제시했다.

경제 6단체 대표들도 수출 1조 달러 이후에는 수출 규모 확대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첨단로봇·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화 및 납품 기회를 늘리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지원, 수출 성과가 국내 생산·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주요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고, 수출 1조 달러의 성과를 대한민국 산업생태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 11.20일(금) 12:00~13:30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무역투자실장,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장

○ **경제 6단체:** ①한경협 회장, ②중견련 회장, ③무협 부회장, ④중기중앙회 부회장, ⑤경총 부회장, ⑥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 등

□ **(주요 논의 내용)** △수출 1조불 의미와 향후과제,
△경제단체 건의사항

□ **세부 계획**(안)

시간	내용	비고
12:00~12:03 (3′)	단체사진	전체
12:03~12:08 (5′)	모두발언	장관
12:08~12:18 (10′)	수출 1조불 소감	경제 6단체
12:18~13:30 (72′)	오찬 및 토론	전체